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4월 17일 (제84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건강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과 결
혼하고 스트레스와 이혼하라.”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이다.

만물은 대접하는 대로 대접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의 자녀로 대접받고, 상대도 인격적으로 대
접해야 나도 인격적으로 대접받듯, 육체도
좋은 것으로 대접해줘야 나에게 좋은 것으
로 대접한다.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
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눈도 귀도 좋은 것
으로 먹여줘야 건강도 나를 대접한다. 사랑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사랑한다
하면서 나쁜 것만 골라준다면 결국 그 사
람이 도망가고 말 것이다. 몸에 술이나 주
고, 담배연기나 주고, 폭식하고, 책상 앞
에서 꼼짝도 안하고 컴퓨터만 하고 있다면 건
강이 도망가고 말 것이다. 하지만 병은 대
접하면 안 된다. 병은 떠받들면 더 떠받치
라고 한다. 잘 해주는데 나갈 리가 있겠나?
병과 이혼하려면 병과 싸워야 한다. 병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된다. 운동하고 건강식
으로 먹고 스트레스를 풀면 병이 도망간다.

인도네시아의 3대 재벌이 폐암이 걸려 나
를 만나러 왔다. 그가 하는 말이 “건강이 없
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 있냐?”고 말했다. 맞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다.
목회 초기, 내가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있을
때 깨달은 것은 건강을 잃으면 부귀, 명예,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었다. 요
즘 나는 다시 30년을 뛰기 위해 건강을 챙
긴다. 잠을 좀 늘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음식도 골고루 챙겨먹는다. 그랬더니
건강이 나를 반기며 찾아왔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 몸
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
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하나님
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잘 관리하자.

2008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집회 때, 필
립 목사는 단에 올라 목사님을 이렇게 소
개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목사님은 21세
기의 사도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
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좌
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러나 그것은 그분을 이해하는데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예수님
의 친구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친구 되
시는 이초석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난 2003년

에게 배울 것은 믿음과 지혜뿐’이라고 단
언하신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히11:6), 그 하나님을 경외하
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9:10)이기 때문
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고
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
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롬1:17). 또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고 하였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다(잠3:18)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

기록해주신 설명서이다. 그런데 사람들
이 듣고 싶은 거만 듣고, 보고 싶은 거만
본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며 예수 그리스
도의 몸된 교회를 사분오열시킨다. 지극
히 지엽말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정죄
하고 편을 가르려 한다. 예수님조차도 추
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건
만, 왜 스스로 예수님보다 위에 서서 뽑
아내려 난리고 아우성인지 모르겠다. 하
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
검하고, 나를 가르치라는 말씀이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말이다.



기도, 말씀, 구제, 선교, 믿음, 지혜, 사랑, 이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한국의 영성세미나 때이다. 물론 그 전
에 목사님의 여러 해외집회 영상을 통
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
에도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어떻게 목사
님을 저리도 잘 알 수 있을까 의아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 목사님의 설교
를 통해서 배워 알게 되었을 것이라 이
해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다’ 라는 분석은 좀 놀라웠다.
보통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기성 교단
이나 기독교 언론들이 18번처럼 떠들어
대는 말들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러하다.
‘귀신만 쫓네, 기복신앙이네’ 하며 공격
하지 않던가? 필립 목사가 그 짧은 만남
으로도 파악 해내는 것을 왜 그들은 보
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의 메시지는 믿음과 지혜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룬다. 당신 스스로도 ‘나

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의 궁극적인 바는
물론 우리 모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
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
한 간절히 바라신다(요삼1:2).

기독교에는 그 정수가 되는 핵심적인 메
시지가 있고, 아울러 이 땅의 삶을 규정
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지혜의 메시지
가 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
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의 잣대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을 만드신 분이다.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지침서
이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
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
게 구원을 받는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
는 삶인지,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상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
리라고 주신 이 땅의 삶 또한 믿음과 지
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만든 율법의 틀
안에 가두어 자유자가 아닌 종의 삶에 자
족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들이다. 천
국시민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감사
하고 기뻐하며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치지 말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필리핀 마닐라 집회

4월 19(화) ~ 23일(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7:1)



멋진 삶을 원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놓고 신나게 살아보자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미래는 약속어음이며, 오늘 만이 현금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여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일생이 성공된 삶이 되고, 오늘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일생은 물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살전5:16), 오늘날이라도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살전5:17), 오늘날이라도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살전5:18).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 일생에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듯,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겠다’, ‘오늘만이라도 사랑하며 살겠다’, ‘오늘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날마다 행복해지고, 날마다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건강하게 되어 일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깨고, 말이 바뀌면 운명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파는 것도 다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알래스카에는 냉장고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 많이 팔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은 사람이 없으니 많이 팔 수 있다’는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뿌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얼음인데 누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사겠나?’, ‘다들 맨발인 아프리카에서 무슨 신발을 팔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아야 ‘나는 대박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말대로 무진장 팔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열명의 사

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자신들이 매꾸기 같다는 말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란 시각으로 바라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과 말은 생명체입니다. 이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창1:1),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약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셨으며, 우리의 구원도 말로 시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롬10:10). 말이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을 맛이다’, ‘빌어먹을 놈 같으니’ 라고 뿌리니 일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죽을 맛이 되고, 평생 빌어먹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무심코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여러분, 생각과 말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 얼굴이 청기스칸과 링컨을 섞어놓은 얼굴 같다는 겁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이렇듯 같은 말을 해도 잘 디자인하면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풍하다’ 하지 말고, ‘풍성하다’ 해보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장되라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키가 작은 딸에게 ‘남들 클 때 뭐했나?’고 하지 말고 ‘여자는 자고로 남자 품에 꼭 들어가야 사랑 받는다’라고 해보세요. 그 가정에 구름 없는 아침햇살 같은 축복과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돈이 됩니까? 아니면 지식이 필요합니까? 힘든 세월을 산 다윗, 그래도 그는 막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말을 참 아름답게 디자인했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1~4). ‘아이고 죽겠네’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 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 너무 멋진 말입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듯, 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양미자 권사가 어느 날 꿈을 꿔는데, 꿈에 제가 ‘누에를 잘 길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에 “말을 잘하면 실크 옷을 입고 다닐 수

녹물이 나오거든 파이프라인을 갈아라

있단다. 말을 잘하면 인생사가 잘 된다는 뜻이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뿜어내는 실로 자기 몸을 칭칭 감듯,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내 삶을 동여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

자!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꿉시다. ‘오늘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리라’, ‘오늘만이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오늘만이라도 온유한 자가 되리라’, ‘오늘만이라도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겸손하리라’,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오늘 아내를 사랑하리라’, ‘오늘 남편을 존경하리라’,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오늘만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리라’, ‘오늘만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바뀌게 되고, 이 오늘이 일생이 되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찬송처럼 오늘부터 씨를 잘 뿌립시다. 누가 미쳤다고 해도 뿌리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면 싹은 나는 법! 오늘 좋은 생각, 좋은 말로 멋진 인생을 만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오늘만이 현찰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주머니에서 말이 나옵니다. 병 속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병에 오물을 넣어놔오니 오물이 나오는 겁니다. 곧 말이란 생각의 외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매일 거미줄을 걷어내도 다음날 가면 또 거미줄이 있지 않습니까? 거미줄을 얹을 것이 아니라 거미를 잡아야 거미줄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 유해한 말, 나쁜 말들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리수가 깨끗하고 좋다고 해도 파이프라인이 녹슬었으면 녹물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바꿔야 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기독교와 정치

성경의 주인공은 문화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다. 그의 구원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다. 즉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다.

바리새인들이 한번은 예수를 시험하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이까 말리이까?”라고 물었다. ‘바치라’하면 반민족적이요, ‘말라’하면 로마에 항거했다하여 잡아갈 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으로 육과 영, 현실과 내세,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구별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가 부패했기에 그것들을 야단치시고 정화시키려 하심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룯의 일가족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소동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그는 정치가나 경제학자, 철학자, 종교가가 아닌 구세주로 오셨다. 당시에도 위대한 헬라철학을 비롯한 최첨단의 로마 정치경제학, 그리고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도덕 윤리, 서기관들의 사회정의 등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도 세상은 멸망하겠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부정, 불의, 죄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하라.”며 현실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하며 내세 구원을 요청했다. 주님의 응답은 영적 구원을 기도한 사람에게 이루어

졌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이야말로 너희가 살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진리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에, 개인보다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정치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논란하자는 뜻이다. 역사상 교회와 정치가 깊이 상호 관여했을 때 교권주의, 암흑시대, 타 교파박해, 타락, 전쟁 등으로 발전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는 구령사업 하는 곳이지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對)사회 사업은 전도를 위한 선교와 봉사의 두 가지 뿐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신기류 목사



::To Be Succeeded::

::사랑 & 행복::

꿈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같이 인류 역사에 굽적하게 수놓은 사건들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부터 시작됐다. 애플 신화와 같이 현시대에 진행 중인 수많은 성공 사례도 마찬가지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구멍가게로 시작한 혼다 자동차공업사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 백화점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어 결국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 성공한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성공이란 꿈꾸는 자의 특권이요, 그 열매라고 말이다. 한때 유럽 대륙을 재패했던 나폴레옹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꿈꾸어야 함을 역설했다. 실제로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세계적인 보디빌더가 되는 것,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가 되는 것, 이 세가지의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병약한 이민자 소년이었던 그에게 이 세 가지 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가 꿈꾸고 바란 그대로. 짐 캐리 역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무

명 시절, 수표 용지를 구입하여 1995년 추수감사절 전까지 할리우드 영화사로부터 일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기록했고, 그가 기록하고 바란 그대로 영화 마스크의 출연료로 추수감사절 전에 일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동경하면서도 막상 꿈을 꾸는 데는 인색하다. 아니,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차라리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안주한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비롯하여 동시대를 사는 성공자들은 말한다. 꿈을 꾸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마귀는 ‘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배운 것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고 참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품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꿈을 이루기까지의 혹독한 훈련도, 주변의 시기질투도, 인내와 기다림도 사실은 꿈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하고 꿈꾸자.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자. 꿈과 기도를 먹고 자란 열매가 마침내 내 삶 가운데 맺힐 때까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건강, 물질, 사랑, 명예, 성공 등과 같이 각자 기준에 따라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그것이고, 죽음 후에 분명히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히9:27). 이 땅에서의 삶 말고 죽은 후의 삶이 분명 존재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잠을 자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 가시면,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 낯을 보며 당당할 수 있을까’라고 가끔 자문(自問)해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

사에 잘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하며,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영은 안전하지 돌아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1:4~11).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멀리 보는 삶을 삽시다

1950~60년대, 땀값이 연료의 90% 이상이었던 우리나라는 공유지인 산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 황폐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으로 산림녹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표현에 걸 맞는 나라를 얻었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본 한 지도자의 나라경영이 후손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생경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가을에 결실을 거둘 것을 알고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멀리 보는 사람은 지금 수고롭더라도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분보다는 전체를,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큰 산을 바라보면 산까지 가는 길에 놓인 작은 동산은 쉽게 념을 힘이 생깁니다. 인생에서도 큰 산을 바라보면, 작은 동산에

불과한 소소한 문제들은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멀리 보는 삶의 태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세가 아닌 영혼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일생을 허비해 버린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져 복음의 길을 걸은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뛰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나이에 새로운 30년을 선포하시고 뛰시는 것도 하늘의 약속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멀리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멀리 보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의 면류관까지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일어서면 그 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원하지 그 일이 앞서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과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이 버려진다는 막막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또, 실패로 인한 자책감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나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자책감은 자존감을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슬퍼한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의 순간이 항상 낮설고 힘든 이유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자책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나 역시 실패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데드캐펫’이기를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시밭길’ 같은 실패의 순간이 다가오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신청했던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거절되었을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되었다. 자괴감 속에 허우적대다가 깨달은 것은 ‘가시밭길’도 잘 걸을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24:16)”는 잠언의 말씀을 되새기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전구를 발명하였다. 그가 남긴 숏한 명언들의 대다수는 실패의 재발견에 관한 것이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에디슨이 남긴 말들이 명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몇 번의 실패였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생각해보자.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고, 아가야. 넘어졌구나.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으니 이제는 유모차만 타고 다니자꾸나.’라고 이야기할 부모는 없다. 다시 일어서면 그 뿐, 넘어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그냥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다가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있는 자가 되길 기도해본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

이경자(59세, 여성)씨는 올해 초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다. 50대 중반에 체중이 크게 늘었고, 그즈음부터 가끔 무릎이 빠근했다. 통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찾아지고 심해졌다. 지난해 말 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고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내려가기도 힘들었다. 영상 검사를 해봤더니 무릎 안쪽의 관절 간격이 줄어든 퇴행성관절염이었다. 이경자씨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고 온열치료를 한 뒤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살을 조금씩 빼면서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관절의 연골이 변성되고 닳아 없어지는 병이다. 연골이 닳을 때 염증 반응이 초래되어 무릎에 통증이 유발되고 관절의 변성이 일어나 점차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서 있거나 걸을 때처럼 무릎에 체중부하가 클 때 통증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며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휴식을 취하면 통증은 사라진다. 퇴행성관절염이 더 진행되면 관절조직이 두꺼워지고 관절액인 윤활액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은 더 심해진다.

통증과 부종 때문에 무릎을 잘 쓰지 않으면 무릎 주위의 근육까지 위축되어 나중에는 무릎을 굽히거나 펴기도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초기 관절염에서 더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선 온찜질과 소염진통제로 염증과 통증을 줄인 다음 체중을 감량하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고 운동으로 허벅지근육과 무릎주위근육을 강화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염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정도의 관절염이 있는 환자라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한 경우는 비록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무릎 근육강화 운동법은 바닥에 앉아 양손은 등 뒤 바닥을 짚고 한쪽 다리는 세우고 한쪽 다리는 펴서 편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반대로 번갈아 가며 10~15회 반복하고 하루 2,3회 시행한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면 근육이 강화됨에 따라 통증이 감소하게 된다. 내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내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참된 깨달음::

명설교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머리가 좋으신게 틀림없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다음 주일, 그 형제를 만난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 그러자 그 형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너무 탁월해서 그의 강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열 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렵게 한다. 지식적으로 열거한다. 어떨 때는 말씀

하시는 목사님 자신은 알고 하시나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일 뿐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쉬웠다. 옆에 있는 사물을, 환경을, 관습을 비유로 아주 쉽게 설교하셔서 어린 아이도 함께 앉아 듣고 이해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죄를 회개케 했고, 은혜의 도가니로 물고 갔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과 대화하면서 문자 써가며 어렵게 이야기할까? 어느 부부가 대화하면서 ‘~적’으로 이야기할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설교는 지식자랑을 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명설교다. 예수중심편집실

춘계산상집회

5월 2(월)~ 5일(목), 예수중심예루살렘기도원 02-533-9191
호텔예약: 4월 26일(화) 10시 정각 홈페이지 예약(www.jcc.tv)

Good News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시절에는 자기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죽은 뒤의 세상,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뒤에 좋은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여 교리를 공부하거나 불경을 암송하며 선행을 베풀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유년시절 주일학교 때 배워서 부르던 노래가 구원의 길을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

니다.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여뻔도 못가고, 맘 착해도 못가고, 지식으로도 못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행 4:12).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부모도 인색한 자식은 싫어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